

# 동네 1등 소년 3·1 마라톤 거쳐 올림픽 출전



1981년 제22회 대회때 정광고 김원식이 일반부 선수들을 제치고 15km(단축 마라톤) 43분12초2로 가장 먼저 골인하고 있다. <광주일보 자료사진>

어려운 시절 차비 없어 광주서 함평 집까지 뛰기도  
1977년 초등부·1981년 우승...한체대서 스카우트  
“1984년 LA 올림픽 때 손기정 선생 격려 못잊어”

## 광주일보 3·1 마라톤 50년

### 함평 소년 김원식 도전기

“올림픽이라는 꿈의 무대에 가는 첫 걸음이었다.”

함평 나산중 체육교사인 김원식 씨에게 광주일보 3·1 전국 마라톤은 불가능해 보이던 꿈을 현실로 만든 희망의 씨앗이었다. 모교에서 후학 양성에 힘을 쏟고 있는 그는 1984년 LA 올림픽에서 태극마크를 달고 42.195km를 달린 자랑스런 국가대표다.

시골 소년에게 올림픽은 말 그대로 꿈의 무대였다. 그는 그 꿈이 시작된 곳은 3·1 마라톤이었다고 말한다.

1977년 18회 대회(당시 전일단축마라톤)에서 광주 대성초교의 김원식은 가장 먼저 결승선을 통과해 초등부 우승자가 됐다. 그리고 고등학생이었던 1981년 정광고 선수로 대회(당시 광일단축마라톤)에 출전해 다시 우승자 명단에 이름을 올렸다.

“3·1 마라톤은 오늘의 나를 있게 만들어 준 무대였다. 먹고 싶은 것도 제대로 못 먹고 힘들게 시작공원 오르막을 뚫고 했는데 3·1 마라톤이 목표이고 희망이었다. 지금은 마라톤 대회가 많이 있지만 당시에는 호남 유일의 마라톤 대회로 1년의 가장 큰 목표였고, 잊을 수 없는 대회였다. 국가대표가 될 수 있게 했고, 올림픽을 갈 수 있게 했던 첫 걸음이었다.”

만능 체육인이었던 그는 학교 운동회에서 선생님의 눈에 띄면서 달리기 선수가 됐다. 빠른 발과 뛰어난 지구력은 타고난 마라톤이었다.

“누나만 셋에 막내 아들인데 넉넉하게 뒷바라지를 해주실 수 없는 환경이라 부모님께서 많이 안타까워 하시고 반대도 하셨다. 고등학교 때는 광주에서 자취를 했는데 차비가 없어서 운동도 할 겸 함평까지 달려간 적도 있다. 어려운 시절 어렵게 운동을 했지만 한 번도 후회한 적은 없다.”

호남은 물론 전국에서도 소문난 3·1 마라톤에서 두각을 나타낸 소년 김원식은 한국 체대에 스카우트 되면서 본격적인 마라톤



의 길을 걷게 됐다. “아직도 통일호를 타고 서울로 가던 날의 기억이 생생하다. 자리가 없어서 어떤 할머니와 통로에서 추위에 떨면서 올라갔다. 학교 바로 옆이 태극선수촌인데 국가

대표 선수들이 태극마크가 있는 옷을 입고 뛰는 게 부러웠다. 국가대표를 목표로 앞만 보고 죽어라 하다 보니까 정말 국가대표가 됐다. 국가대표가 되니까 이번에는 올림픽에 나가봐야겠다는 목표가 생겼다. 그렇게 또 열심히 해서 정말 올림픽에 가게 됐다.”

3·1 마라톤을 통해 키워낸 희망의 씨앗은 1984년 올림픽에서 마침내 꽃을 피웠다. 그리고 평생 잊지 못할 따뜻한 손길도 느꼈다.

“개인이 아니라 대한민국을 대표한다는 책임감으로 죽기살기로 뛰었다. 골인을 하고 기진맥진해서 쓰러져 있는데 누군가가 등을 어루만져 주셨다. 그분이 손기정 선생님이셨다. 많은 출발선에 서고 골인을 했지만 그날의 가슴 벅찬 기억은 아직도 생생하다.”

올림픽 무대를 향한 출발선이었던 3·1 마라톤의 기억도 여전히 선명하다.

“도청 앞에서 광주공원을 왕복하는 코스였는데 시민들이 많은 응원을 해주셨다. 특히 유동삼거리로 돌아 도청 쪽으로 들어오는 길의 인파는 상당했다. 막판 스피드를 하면서 시민들의 응원도 정신력으로 뛰었다. 봄을 알리는 대회이자 선수들에게는 동계 훈련이 끝나고 처음으로 맞이하는 대회였다. 얼마만큼 실력이 좋아졌는지 점검하는 한 해의 중요한 시작이었다.”

“동네 1등에서 올림픽까지”라고 얘기하는 그의 마라톤 인생. 3·1 마라톤에서 시작된 김원식씨의 꿈은 여전히 달리고 있다.

“우리나라 마라톤 활성화와 발전을 위해 앞으로도 노력하고 싶다. 폐교된 학교를 리모델링해서 우리나라 최초로 마라톤 전문 학교를 만들어 많은 이들이 건강하고 즐겁게 마라톤을 즐길 수 있도록 하는 게 나의 가장 큰 꿈이다.”

<광주일보 기자 wool@kwangju.co.kr>



## “U대회서 양2 쓸 것”

양학선 “金 위해 준비 완벽히 하겠다”

‘도마의 신’ 양학선(22·수원시청)이 자신의 이름을 딴 독자적 기술 ‘양학선1’(양1)과 ‘양학선2’(양2)에 대한 자신감을 높이고, 욕심은 떨쳐냈다.

양학선은 24일 서울 웨스틴조선호텔에서 열린 코카콜라 체육대상 시상식 후 기자들과 만나 “제 기술은 여자 스카하라 트리플이 아닌 양1과 양2”라며 “모든 대회에서 그 기술을 쓸 수 있도록 하겠다”고 각오를 다졌다.

‘도마를 앞으로 잡고 세 바퀴를 비트는’ 양1과 ‘도마를 옆으로 잡고 세 바퀴를 비트는’ 양2는 난도 6.4인 최고 수준의 기술이다. 반면 여자 스카하라 트리플의 난도는 6.0로 이보다 낮다.

양1과 양2를 부담없이 구사하도록 기술과 체력을 연마 하되, 불필요하게 위험을 감수하지는 않겠다는 게 양학선의 생각이다.

양학선은 지난해 인천 아시안게임에서 허벅지 헬스트링 부상으로 몸 상태가 안 좋은 상황에서 양1, 양2에 도전했으나, 실제로는 양2와 스카하라 트리플을 구사하고 기대했던 금메달을 놓치고 은메달을 목에 걸었다.

양학선은 “작년에 느낀 것은 욕심부리지 말고 매달단 생각하자는 것”이라며 “굳이 양1과 양2를 안 써도 되는 경기에서는 두 기술을 쓰지 않고 메달을 따겠다”고 말했다. 그는 “기술을 갈고 닦아서 (7월 열리는) 광주 하계 유니버시아드 대회 때부터는 양2를 사용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지난 시즌 부상에 발목이 잡혀 아쉬움을 남겼던 양학선은 “아시안게임 이후 우물 증세가 왔다”며 “그걸 털어내야 할발 더 나아갈 것 같다”고 털어놨다. 그는 “인천 아시안게임 때는 준비 상태가 안 좋아서 부담감을 느꼈지만, 광주 유니버시아드는 철저히 준비하겠다”고 강조했다.

<연합뉴스>



## 광주일보 3·1절 마라톤 D-4 “우리가 뛰다”

### 광주달리기동호회

# 기록보다 화합...함께 뛰니 즐겁지 아니한가

30~60대 온라인 회원 2000명  
선·후배 함께 뛰며 노하우 전수  
“光日은 한 해 달리기의 시작점”

“좋은 기록을 내는 것도 중요하지만 단 한 명도 부상없이 모든 회원이 즐겁게 완주하는 게 목표입니다.”

3·1 마라톤을 일주일 앞둔 지난 22일 오전 7시 첨단교통공원 주차장, 광주달리기동호회 회원 17명이 가볍게 몸을 풀고 있었다. 3·1 마라톤과 동아마라톤 참가에 앞서 마지막 점검 훈련이 진행됐다. 이들은 첨단교통공원에서 담양 한재골까지 32km를 뛰며 컨디션을 점검했다.

지난 2000년 온라인 회원 2명으로 시작한 광주달리기동호회는 현재 온라인 회원 2000여 명과 오프라인 회원 40여명이 활동하는 광주의 대표적 마라톤동호회다. 30~60대까지 다양한 회원들이 뛰고 있다.

‘광달’의 캐치프레이즈는 ‘함께 달리면 더 즐겁습니다’이다. 한마디로 ‘편린’이다. 기록 향상도 중요하지만 그보다는 회원간 친목과 화합을 우선으로 하고 있다.

동호회는 정기모임을 통해 돈독한 정을 쌓고 있다. 일명 ‘수달’(수요일달리기)과 ‘일달’(일요일달리기)이다. ‘수달’은 수요일 오후 7시30분 월드컵조경기장에서, ‘일달’은 일요일 오전 7시 첨단 교통공원주차장에서 출발해 밤실제 및 한 재골을 왕복해 달리며 건강을 다지고 있다.

‘광달’은 실력에서 ‘명품’이다. 풀코스 100회 이상 완주한 이들이 수두룩하고, 서브-3(풀코스 3시간 이내 완주)에 울트라마라톤까지...

이 같은 저력은 체계적인 훈련방법과 독특한 팀 운영방식에서 나온다. 일단 회원으로 가입하면 이론교육에서부터 달리는 방법 등 입문자들이 간과하기 쉬운 기본기를 선배들이 체계적으로 전수한다. 달리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문제는 선·후배 회원들이 함께 뛰면서 충고와 격려를 통해 스스로 체득하도록 돕는다. 여기에서 기량이 뛰어난 ‘리더’와 후발 주자들을 적절히 조별 레이스에 편성, 서로를 독려하면서 달리는 시스템을 운영하고 있다.

분위기도 화목하다. 올해는 ‘젊은 오빠’ 송영현 회원의 회갑을 맞아 ‘2015 광달 송영현 마라톤대회’를 열었다. 지난달 25일 주말호 일대에서 열린 대회에는 회원 27명이 참석했다. 주인공 송영현 회원은 “나만의 마라톤 대회



광주의 대표적 마라톤동호회인 ‘광주달리기동호회’는 지난달 25일 송영현 회원의 회갑을 맞아 ‘2015 광달 송영현 마라톤대회’를 개최, 회원들의 친목과 화합을 다졌다. <광주달리기동호회 제공>

를 열어준 회원들께 너무 감사하다”며 “80세까지 회원들과 즐겁게 달리는 게 희망이다”고 즐거워했다.

김기흥(58)·정신연(50)씨는 부부 마라톤이다. 이들은 풀코스만 118회를 완주한 베테랑이다. 지난 2002년 건강을 위해서 달리기 시작한 이들 부부는 70세까지 손잡고 계속 달리는 게 꿈이다.

훈련장장 배승진씨는 ‘가족이 달린다’지

난해 평화통일마라톤대회에서 백 팀장은 하프를, 아내와 아이들은 5km를 완주했다. 매년 3·1 마라톤에서 가족이 함께 뛰었는데 올해는 5km종목이 열리지 않아 다음 기회로 미뤘다.

안병완 회장은 “광주일보 3·1절 마라톤대회는 한 해 달리기를 시작하는 출발점”이라며 “성적보다는 건강하게 ‘편린’하는 화합과 배려의 대회로 삼겠다”고 말했다.

<박정욱기자 jwpark@kwangju.co.kr>

<연합뉴스>

## 2022 카타르 월드컵 겨울 개최

### 세이크살만 AFC 회장 “11·12월 유력”

2022년 카타르 월드컵의 개최 시기가 11~12월로 굳어졌다는 핵심 관계자의 말이 나왔다.

세이크 살만 빈 이브라힘 알 칼리파(바레인) 아시아축구연맹 회장은 24일(한국시간) 영국 BBC방송과의 인터뷰에서 이같이 밝혔다. 그는 개최 시기를 결정하기 위해 결성된 실무회의의 회장을 맡고 있다.

세이크 살만 회장은 “많은 이들이 여름 개최에 반대하고 있어 결국 1월이나 11월이냐의 문제”라고 말했다. 그는 “1월은 동계올림픽과 겹치기 때문에 내가 볼 때 대안은 11~12월밖에 없다”고 덧붙였다.

카타르를 접단의 냉방 기술을 앞세워 여름에 월드컵을 열겠다고 선언하고서 2022년 월드컵 본선 개최권을 따냈다. 그러나 섭씨 40도가 넘는 불볕더위에서 선수, 관중, 지원 인력의 안전을 모두 담보할 수 없다는 우려가 불붙 터지듯 이어졌다.

결국 국제축구연맹(FIFA)은 겨울 개최를 염두에 두고 구체적 시기를 새로 잡을 실무회의를 결성했다.

유럽 프로리그들은 추추제로 진행되는 시즌이 한창인 겨울에 월드컵 본선을 여는 방안을 반대하고 있다. 국제올림픽위원회(IOC)도 동계올림픽과 월드컵이 겹쳐 서로 흥행이 저해될 수 있다며 난색을 표명했다.

실무회의의 제안이 다음 달 열리는 FIFA 집행위원회를 통과하면 2022년 월드컵 본선의 개최 시기는 확정된다.

<연합뉴스>